

할렐루야,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재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5년 2월 1일 (토) 제 2002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운명론자가 되어야 하나?

####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미 있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EPM(Eternal Perspective Ministries) 직원이 “어려서 죽는 경우에, 그게 제때에 죽은 건지, 아니면 미리 정해진 시간에 죽은 건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내 답변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낙태로 죽는 아기는 어떤 경우 인가요? 하나님이 아이가 낙태로 죽도록 정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낙태 반대 운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탄이 수많은 악을 저지르도록 허락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꼭두각시일 뿐이니까요.”

나는 솔직한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는 크고도 어려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악, 고통, 저주를 포함한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에 인간에게는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운명론 철학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에서는 운명론이 우세하다. 아랍어 인살라(Insha'Allah)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신의 뜻이라는 의미이다.

불행히도 일부 그리스도인—예를 들어, 극단적 칼빈주의자(hyper-Calvinists)—도 운명론자처럼 추론한다. “택한



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교나 전도는 무의미합니다.”

기독교화된 운명론은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의역한 것보다 덜 직설적인 언어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나는 이런 논리를 여러 번 들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 인종차별, 노예제도, 성매매를 명령하셨다. 그것들은 엄연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철폐하고 싸워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다.”

복음주의 목사들 중에는 낙태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낙태되지 않고 태어나는 경우에, 그중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취하고, 목소를 내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요구한다(예를 들어, 잠 31:8-9과 약 1:27 참조). 이것은 운명론의 정반대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살기에 너무 위험하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악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중 일부는 무관심에서, 일부는 운명론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

을 위해 악조차도 사용하신다. 그럼 죄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는 건가?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막기 위해 개입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행동할 때, 그의 도덕적인 뜻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인간이 진정으로 선택을 하고 악에 저항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혀 운명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권을 유지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기도하길 원하신다. 또한, 삶과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격려하신다.

(12면으로 계속)



###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해 물어야 할 다섯 가지 질문

#### 소셜미디어에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목사들은 종종 기술에 반대하는 공허한 표현을 쓰곤 한다. “소셜미디어 그만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별 효과도 없는 이런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물론 소셜미디어를 그만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소셜미디어 때문에 산만함, 불안, 우울증이 악화되는 사람들은 그만두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어쩌면 웨스 허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에 그가 올린 성경의 역사성 옹호에 관한 영상 하나가 바이럴 되었다. 그 변증 영상에 댓글을 다는 이들 중에는 웨스 덕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의 급작스런 인기 상승은 쇼츠 영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콘텐츠까지 보고 싶어 한다. 복음 전파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웨스가 소셜미디어를 즐기지 말고 더 많이 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게시는 소비와 다르다. 앤디 크라우치는 Culture Making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형태의 기독교 활동은 창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디지털과 관련해서 마치 극렬 반대자 아니면 디지털 선교사라는 식의 ‘모 아니면 도’라는 단순한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비록 수준이 낮지만) 디지털 산만함의 좋은 점까지도 존중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2면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4면  
신동기 목사



선교한국 7면  
손상용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엔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 애틀랜타 지역 목회자세미나

##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강사 이용걸 목사

총신 졸업  
웨스트민스터 졸업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목사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강의내용

- 바울의 목회철학
- 목회자의 위기관리
- 효과적인 전도
- 새신자 관리

일시  
2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2월 25일 화요일 기도회 오전 10시30분

장소  
새날장로교회 (담임목사 류근준)  
New Days Church (Pastor Keun Joon Ryu)  
3468 Duluth Hwy. Duluth, GA.30096

참가자격  
교회 담임목사, 원로목사  
교회 개척 혹은 준비중인 목회자  
개척교회 사역 부목사 및 전도사

참가비 없음, 식사 및 선물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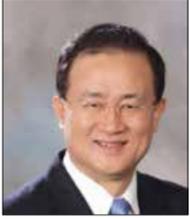
참가신청 404-915-4717  
732-322-3453

주관 애틀랜타목사회 회장 이제선 목사  
후원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최병훈 목사  
애틀랜타 원로목사회 회장 정광현 목사  
크리스찬 타임스 발행인 이윤태 장로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이용걸 목사

디모데목회훈련원 (Pastoral Training & Supporting Institute Church Growth)  
www.ptsimission.org  
195 Central Ave #4502 Metuchen NJ 08840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이용걸 목사

시론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아름답고 성격이 매우 강한 여인, 그래서 못 남성들에게 단연 인기 최고였던 스칼렛 오히라 앞에서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여인과 미리 결혼을 약속하여 사라지고, 대단한 부자였는데 남북 전쟁이 터져서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 버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 게다가 가족들이 하나씩 병들어 죽음으로 사라져 버린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뒤 황폐한 고향 타라 빌리지에서 나무뿌리를 캐먹다가 그녀는 이렇게 외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여,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다시는 굶지 않게 만들고야 말 거야.”

그리고는 억척스럽게 일하여 살아버렸던 부를 다시 일궈낸다.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칼렛을 무척 사랑하던 남편 레트마저 그녀에게 실망하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야 자기가 남편을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 이렇게 외친다. “그 이를 다시 찾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방법을 연구해 볼 거야.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야.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도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스칼렛의 마지막 대사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난다. 마가렛 미첼의 원작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를 1939년에 영화화한 내용이다. 소설 자체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으나 영화도 할리우드의 역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영화 중 하나이며,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라 할만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 남부 여성들의 강인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난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또다시 일어나는 오탁이처럼 그 여인들은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그리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향하여 어서 일어나지 못하냐고 불호령을 내리는 듯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졌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 엘리사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좀 신통치 못한 선지자 이미지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자신은 어리고 말할 줄도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사역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다. 종종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두드러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다. 그럴 때 선지자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다. 어찌 보면 무능한 선지자라 할 수 있었다. 흔히들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데 상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의 유약한 모습도 한몫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코 사역의 현장을 떠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그가 사역한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결국에는 유다가 패망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 파괴되는 고통스런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스칼렛 오히라가 내게 불호령을 내렸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불호령을 내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렘 12:5). 다른 사람과 경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말과 경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보다 두세 배는 빠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도전하신다. “예레미야, 너는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벌써 지쳤다고? 너, 너무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현재 상황에 엄살을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질책이다. 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꾸지람이다. 세상이 어지럽다.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오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 벌써 지쳤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런데 잊지 마라. 너는 더 어려워져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벌써부터 약한 소리 하지 마라!”

minkyungjob@gmail.com

내게 기쁨을 가져다준 암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더 바라게 한 시편 139편

나는 항상 암이 두려웠다. 암 전문 병원을 지날 때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다. 그 두려움이 4개월 전에 현실이 되었다. 정기 대장내시경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병원은 나를 휠체어에 태워서 아내에게로 데려갔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대장암이었다. 이어서 외과 의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수술이 필요했고, 아마도 항암화학요법, 어쩌면 더 힘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기 암 세포가 대장 또는 내장을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이미 림프절을 침범했고 장벽 안쪽까지도 퍼진 상태였다. 나는 9월 초에 시작된 6개월 집중 항암화학요법을 견뎠다. 2주에 한 번씩 총 12차례를 받았고, 매번 이전보다 고통은 더 극심했다. (지금은 다섯 번째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뼈 통증, 입 궤양, 추위에 대한 예민한 반응, 심한 피로,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추가 치료까지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지난 수년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하다. 왜일까?

나는 의심이나 분노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느낌으로 힘들지도 않다.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건 아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서 체험에서 오는 가장 깊은 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지난 49년 동안 배운 나를 향한 그의 신실함과 사랑에 관한 모든 내용은 지금 이 순간 매우 생생하게 다가온다. 나는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편에 뿌리를 내리고

이 악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39편이었다. 그리고 그 시편이 내 닻이 되어야 한



다는 사실까지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 시편은 나의 신학을 정제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 받는 내게 주님의 사랑이 현실이 되게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내게 추천한 찬양 중 상당수가 시편 139편을 직접 인용하고 있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또 그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시편을 주셨다. 그리고 매 구절을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셨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내가 말하기는커녕 심지어 생각한 적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나의 생각, 두려움, 그리고 의심은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스럽고 완전하며 온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확신시켜 주신다(1-6절, 17-18절).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에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지 속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양들에게는,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사실처럼 심오한 위안을 주는 것도 없다.

이전까지 나는 그 사실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되었고, 과거에 결코 알지 못

했던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다. 내가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거기에 계신다. 그것은 진정한 위안이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갈구해도 나는 그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수술 후 깨어나는 것, 그리고 수술 회복이라는 비참한 현실에 처하는 건 마치 스물에서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내, 자녀, 손주, 며느리 들이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은 깊은 구렁이에 빠지는 것 같지 않을까? 수차례의 강렬한 항암 치료는 내가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나와 함께하셨다. 내가 있는 바로 거기에 함께하셨다. 고통의 연속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내 앞에는 그 분이 계셨다. 그는 그 때에도 나와 함께하셨다.

숨고 싶다고 숨을 곳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숨고 싶었던 적도 없었다. 스물도, 천국도, 새벽의 날개도, 빛도, 어둠도 숨을 장소가 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진짜이고, 현존하며,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었다. 교리나 신학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바로 거기에 계셨다.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며 나를 위로하고 또 확신을 주셨다. 그의 손 안에 내가 있었다(7-12절). 그렇다고 그가 내 삶에서 지옥을 사라지게 만든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나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셨다. (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실교
[세지너가 허버트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직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사랑한인교회 (LA 한인타운)
사랑한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부교역자와 행정간사를 청빙합니다.
파트타임 부교역자
파트타임 행정간사
가격: 전도사, 목사
믿음이 좋은 평신도도 가함
접수 및 문의: lovekrch@gmail.com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대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목: 현대적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이다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서전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권혁천 목사
서기: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전통진 목사

###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해...

(1면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소셜 인터넷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에 따라서도 다르다.

하루 중 어느 때?

우리는 하루에도 시간대에 따라서 도덕감(moral virtue)이 오르락내리락한다. 하버드 대학의 마리아 쿠차키와 유타 대학의 아이작 H. 스미스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아침보다 오후에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래저래 부정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오후에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연구 결과가 아니다. 사람이 아침에 더 도덕성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현자들이 적지 않다. 물론,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항상 도덕적이라는 건 아니다. 가장 유머러스한 잠언 중 하나에서 우리는 좋은 축복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른 아침에 큰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잠 27:14).

따라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에 따라서 그에 관한 조언의 한 측면이 결정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는 화면이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면 부족이 자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침대 바로 옆에 휴대전화를 두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늦은 오후에 어기적거리며 스크롤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가 20대 학생이면 30대 변경론자든 내가 되고 싶은 질문 중 하나는 주로 언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느냐이다. 당신은 어떤 맥락에서 소셜미디어를 하는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또는 교회와의 더 깊은 관계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술에 의지한다. 당신은 언제 스크롤을 하는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소셜미디어 사용 목표가 없다면 당장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진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그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옛 자이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당신은 이제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닌 자제심의 영이다(딤후 1:7).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에 맞게 행동하라. 뉴스를 보거나,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또는 잠깐 웃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소셜미디어가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만족하게 제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는 이런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당신 휴대전화에 있는 각각의 소셜 앱에 대한 목표를 적어 보라. 그 목표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계정은 팔로우를 취소하고 또 꼭 팔로우해야 하는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

닫게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 더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 앱이 주는 스트레스와 죄스러운 유혹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덕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당신은 점점 더 큰 자제력을 실천하고 있는가? 지혜는 어떤가?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도 커지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용기, 자기 부정, 이웃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덕을 개발했다면, 내가 당신에게 소셜 미디어를 추천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짧은 비디오 콘텐츠를 피한다. 하지만 Bluesky Social과 트위터("X")는 내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나는 거기서 기독교 학자들을 만나고,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거기가 아니었다면 접하지 못했을 정보에도 접근했다. 상황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덕이라는 점 하나만을 가지고 나의 성장을 평가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17:9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간사하고 몹시 병들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도덕성을 과대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더 잘 사용한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거짓된 자화자찬 소셜미디어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하루에 한두 시간이 정말로 당신의 덕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가?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싶은가? 배우자, 친구, 그리고 목사/장로 중 적어도 한 명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소셜미디어 습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라.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충고를 믿으라.

관계를 세우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청중을 "대면해서" 만나지 않는 한 자신의 기쁨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축도가 끝나면 바로 교회를 나가고, 눈을 치울 때 이웃과 이야기하지 않으며, 식료품점에서도 헤드폰을 쓰고 있다.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온라인이라는 경로를 통해 진짜 필요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관심사를 타인과 연결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지는 게 화면뿐이라면, 그건 결코 제대로 된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다. 깊은 기쁨을

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이다.

작년 "AI 여자친구"에 대한 검색이 무려 160만 건이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디지털로 매개된 상호 작용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 결과 관계적 유대감을 위해 아예 비인간적인 기계로 전환을 꿈꾼다. 소셜 미디어도 비슷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몇 분간은 피드에도 실제 인간이 머물렀지만, 디지털 관계만 가진 누군가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기술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편지로 이것을 실천했다. 그가 편지를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요일 1:4) 하기 위해서였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진리와 사랑을 전달하고 서로에게서 기쁨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매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소통 매체는 인간의 육체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당신이 마음에 완전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일상적인 결정이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는 데 반영하기를 원하신다. 단지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모든 순간,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점, 사용하는 이유, 누구와 함께 사용하는지 숙고할 때,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데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최악의 실수는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톨리라인키가 말했듯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 된다. 우리는 지금도 각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습관은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기술사용 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덕 안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by Andrew Noble, TGC

### 목회단상

## 팔 없는 예수님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베를린 최대의 변화가인 쿠팡 거리 중심가에 흉한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베를린 사람들은 이 건물이 썩은 이빨을 닮았다 해서 '썩은 이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흉한 건물은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입니다. 1890년대에 세워진 이 교회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인해 교회 일부가 파괴되고, 남은 잔해가 흉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한 모양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는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보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서면 오른 팔이 없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인해 예수님의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성도들은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조각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을 두 번 죽인 것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성도들은 오른팔이 잘려 나간 예수님의 조각상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보수를 위한 헌금이 다 마련되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동상을 부수고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잘려 나간 팔만 새로 붙일 것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일어나 오른팔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보수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아래 이렇게 써 놓자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동상을 팔이 없는 모습 그대로 세워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동상 아래 '예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라는 뜻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 것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했던 우리 머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머리에 가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손과 발로 지었던 온갖 죄악들을 대신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녹슨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대신해 심장 깊은 곳을 창으로 찔림으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팔을 지니고 있습니다. 14세기, 플랑드르 지방에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까"라는 역명의 시가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까. 단지, 오늘날, 그분의 일을 수행할 우리의 손밖에.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까. 단지, 사람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할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는 입술이 없습니까. 단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의 우리의 입술 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성경 자체가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성당 관계자 그러치아노 씨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팔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러 올 때, '여기 있는 누가 예수님의 양팔을 대신해줄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건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cefyeo@hanmail.net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삼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x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2 Samuel 12:13-17
(2) NT Exegesis Text : 1 Thessalonians 4:13-18
(3) Thesis Topic : "From a reformed perspective, present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and nurture of the Endemic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 church."
(4) Sermon Text: (Choose One) O.T- Leviticus 16:1-10 "The Goat Sent Away into the wilderness to Azazel" N.T- John 12:27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David Chu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29, 2025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29, 2025.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7, 2025).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6(Mon)~27(Tue), 2025
b) Place :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5,26) through Rev. David Chun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t To

Rev. David Chun
Address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Cell : (856) 359-5345 E-mail : djchun5882@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권혁천 목사
서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장로 아십니까!

예전에 아틀란타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오신 장로님이 계셨다. 작은 식품점을 운영하시다가 다른 한인에게 가게를 팔고 오셨는데, 새롭게 가게를 매입한 분이 계약이 다 끝난 일을 두고서 이모저모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장로님을 괴롭게 했다. 장로님도 자신이 매매한 가게가 문제없이 잘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자 힘들어하셨다. 그러던 중에, 큰 손해를 보시면서 물질을 다시 물어주시는 결정을 하셨다. 다 끝난 일인데, 왜 그러셨냐고 물었을 때, 한마디를 하셨다. “장로 아십니까.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는 그말에 손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이 지역에서 계시지 않고, 시간이 꽤 지난 일이지만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세상 앞에 주장하고 따질 것이 많아요 주님의 이름이 욱먹고, 하나님의 영광

다. 무서운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명백하다.

직분에 합당한 이름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는 표시가 아니다. 이름에는 정체성과 책임, 소명이 담겨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상이 주는 어떤 아름답고 복된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있다. 직분에 합당하게 주시는 이름들이다. 부담스럽기도 하겠으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 교회가 준 사명자의 이름, 직분이 최고의 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명도롭게 살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직분

교회가 주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다. 실제적인 땀 흘림의 충성이 필요한 직책이다. 사람들에게 직분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외견상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수준은 사명을 위한 그의 땀 흘림과 함께 평가된다. 그러므로, 직분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얼마나 충성 되게 땀 흘려 일하는가이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잘 다스리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말씀한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이 있음을 의미한다. 충성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교회 리더 한 사람의 문제

세우는 데 장애가 되고,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장로는 믿음과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딤후 3:1-7).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장로가 자신의 이익이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다른 성도들과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할 경우,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교회가 본래 가져야 할 사랑과 연합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세상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에 영적 무관심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장로로서 말씀과 지도에 힘쓰지 않거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우이다. 신앙 이야기보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기독교인은 애국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했습니다. 목사님이 중북세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요즘 한국은 중북도 문제이지만 중국 공산주의에 비호를 받는 종종 세력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셀비치에서 Sam Kim

중중세력

**A:** 종종 세력은 중국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세력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의 정책은 친중, 반미, 반일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큰 산봉우리요 우리는 작은 나라라는 굴욕적인 자세로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문재인과는 달리 친미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긴밀한 외교정책을 펴는 등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며 주변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대만은 중국을 포위하는 데 린치 핀과 같은 중요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한국과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진출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주한미군기지 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국의 최첨단 기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각 방면에 보내 정치 언론계 등 다방면에 돈을 뿌리면서 중국 프락치들을 심어 친중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중국 정책에 찬동하게 만들고 한국을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입니다. 이들은 친미보다 친중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은 중북세력보다 종종세력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윤대통령이 중국의 공산당에 배후를 둔 중국 좌익 공산주의 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이 싸움의 배후에는 체제를 전복시켜 중국에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의 악한 개입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의 1/3이 “중국 국적자이다”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중국 몽을 말했다는데 중국 몽은 한마디로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것을 복원한다는 것인데 전 세계에 중국 중심의 신 지배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2049년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된다는 꿈을 꾸는데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로드맵은 3단계라고 울산 대학교 교수인 이재봉 교수는 말합니다. 제1단계는 중화권 패권지위(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지배한다는 전략입니다. 제2단계는 아시아 지역 패권(한반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을 지배하는 전략이다. 제3단계-유럽과 미국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전략도 여러가지인데 1) 일대일로로 실크로드를 통해 동중과 유럽 등 전세계를 중국과 통하게 만드는 것이다. 2)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영역을 중국이 지배한다. 3) 정치 공작전을 통해 공산주의식 정치적 지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에 대해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입니다. 중국은 정치 지도자들과 각 방면에 엘리트들을 포섭하여 종종 세력으로 돌아서게 하고 이를 위해 돈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종종 세력들이 당선되도록 부정선거에도 개입해 합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공산주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침투 전략은 1)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중국인을 해외에 많이 이주시킨다. 2) 가는 곳마다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공자학원을 만든다. 공자학원은 전세계 120개국 437개 대학에 심었는데 월간조선에 의하면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나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거점이요 감시 첩보 기관이요 스파이 간첩 양성소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은 친북보다 친중의 반국가 세력이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는데 이번 윤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 젊은이와 국민들을 깨워 한국의 중북 종종의 반국가세력의 활동의 심각성을 깨우치는 계몽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리더쉽과 직분

-하나님의 영광, 교회, 직분-

이 가려져지는 일이라면, 차라리 손해 보고 말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교회도, 예배도 뒷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음을 보기 때문에, 더욱 그분의 생각과 겸손한 자세가 그리워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영광 직결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 병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부모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이름을 지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13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부모가 “이제 그만 낳자!”라고 하며 “이제 그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든 이름에는 이러한 부모의 소망이 담겨있는 소중한 이름들이다. “누가 함부로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가”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이름이기에 아름답고, 뜻이 좋고 인생에 복이 되는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에는 비전과 소망과 꿈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세상 이름은 어떠한 상관도 없다. 어떤 이들은 아이 이름이 천해야 삶이 형통하다는 차원에서 거의 강아지 이름보다 못하게 짓는 경우도 보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름이 있다.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이름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이름의 무게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교회의 소중한 직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됨에도, 전혀 상관치 않는 것이

아가야 한다. 성경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 즉 명예다. 그 명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교회가 준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주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보다, 많은 재물을 택하며 사는 것을 본다. 자신이 살고 성공해야, 교회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앞뒤 순서가 전도된 타락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직분은 부르심과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단순히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자 축복이다. 교회에서 직분은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사명이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한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가 맡은 직분은 세상의 직업처럼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다. 영적인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가 아닌 공동체 전체에 해악이 된다.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안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며, 각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지체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교회라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 리더쉽과 직분

특히 교회 리더로서의 목사와 장로는 더욱 그러함을 인식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부름 받은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 직분은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다. 목사는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을 목사로 불러주지 않음에 화를 내기도 한다. 화병의 근저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의 최고 리더인 목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재정을 유용하는 경우,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세상에서도 돈과 관련된 스캔들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 하물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안 될 것이다.

목사와 마찬가지로, 장로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소홀히 여기므로, 교회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흐리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권사의 직분도 교회 리더쉽에 큰 분량을 차지한다. 권사는 무엇보다 기도와 중보의 사명, 성도 돌봄과 권위를 한 봉사의 직분인데, 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감당치 못할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합을 저해하는 자신의 말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특정 그룹만 편애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결과를 많이 보게 된다.

회개와 결단, 직분의 영광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직분자인 목사, 장로, 권사의 회개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이를 해소할 길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자신의 직분 감당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모든 직분은 섬김이 본질이다. 섬김의 본질 회복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사역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교회중심, 성경중심, 하나님 중심의 목표의 기준이 분명할 때 복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끊임 없는 회개의 침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 직분자는 자신의 영광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

시는 칭찬과 상급이며, 이를 위해 날마다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신앙 위에 정치?

“한국 사람들은 신앙 위에 정치가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교회 안에도 정치이슈가 커졌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어수선한 조국 대한민국의 분위기에 이만 사회도 예민한 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이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

그룹이 세력을 바짝차리고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 영적 중심을 잘 지켜내야 한다.

사람은 안듣는 것 같아도, 필요한 것을 모두 듣는다. 결코, 신앙 위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자신을 좌파 우파로 표현하면서, 나름의 정의를 말하지만, 교회 내에서만큼은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겠다. 공동체를 해쳐가면서까지 주장할 정치이념도, 절대 선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하여, 말할 뿐이다. 교회가 성경적인 지조를 지켜야 한다.

davidnjeon@yahoo.com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선교의 새로운 바람과 전략”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사역에서 세계 전역의 무슬림계를 대표하여 풍향계 (Barometer) 역할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 중

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또 워낙 타지역에서 옮겨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21세기의 변화를 가장 앞장서서 맞고 있으며 그런 변화가 빠르

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현지 교회도 더욱 담대하게 무슬림들을 대하고 있기에 종교적인 대치 보다는 서로 인정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슬람의 횡포를 도시가 아닌 지방의 몇몇 지역에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역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시대의 변화를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슬림 사역에는 최근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며 성령께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사회 체제가 변화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세계 전역에서 사

람들이 새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일거리와 새 기회를 찾아서 유입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다채로운 모습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슬림 사역은 그동안 충분히 서로를 알고 신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나누는 관계 전도가 가장 안전 한 복음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그 전략조차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많은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한 International Mission Board(미국 남침례교 선교부)에서는 최근 발전하는 무슬림 도시에서 새로운 전략을 필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Three Any입니다. 그동안 무슬림 지역에선 관계 전도가 전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계 전도 외에 Anywhere,

Anytime, Anyone 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고 또한 서로 섞여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관계 형성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젊은층)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 방식을 사용하지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모르는 사람 중에 젊은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전도 못지않게 열매를 맺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 적합하다는 것이 통계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믿음은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서로 친분 관계가 없더라도 젊은이들은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둘째, 복

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도록 마음을 열어 놓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땐 후에 또 복음이 들리면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SNS라는 매개체도 주셨지만 젊은 무슬림들이 훨씬 가깝게 귀를 열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훨씬 빠른 복음의 불길기 무슬림 사회를 활활 태울 수 있는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런 무슬림 세계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gypaek@hotmail.com

###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혼동을 하곤 합니다. 대체 어느 소리가 진실인가? 누구의 소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과연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는 목회 전

문가이지만 종종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간치 못하여 고민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현장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각 사람들의 소리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의 소리와 교인들의 소리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

는 나의 생각과 성령님의 소리가 다름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며 누구를 따라가며 어느 소리를 들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소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탁월한 지혜자이시기에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리들의 갈림길 선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선택해

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 신비로운 현상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현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력이 충만함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라고 기록합니다.(막1:10) 너무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의 현상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움이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려 오심을 보시더니”(막1:10) 라고 합니다.

셋째는 하늘로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막1:11)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가운데서 사람의 소리보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뉴스나 언론 매체의 소리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따라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지라”(마 17:5)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너희 생각을 따라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천성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우리는 매우 혼란 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치닫는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들의 귀를 때립니다.

여기저기서 그들을 따르라고 소리치는 별의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손짓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조용히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일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종 된 모든 이들은 다 른 것 아닌 오직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새해에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행복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cyd777@hotmail.com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미국인 2/3 낙태 제한해야, 의료인의 강제 낙태 시행 '요구해선 안 돼'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 가량은(67%) 임신중절(낙태)에 제한을 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믿는 응답자는 32%로 나타났다. 3분의 2가 넘는 응답자(62%)는 종교적 이유로 낙태에 반대하는 의료 전문가가 강제적으로 낙태를 시행하는 것에 '법적으로 요구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7일 미국 교계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메리스트대학교 가톨릭 단체인 콜럼버스기사단(Knights of Columbus)이 지난 7~9일 미국인 성인 138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는 임신 중절(낙태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미국인 의견을 조사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대다수 미국인(62%)는 자신을 선택의 자유 찬성자로 여겼으며, 36%는 자신을 '생명권 찬성자'로 응답했다. 미국인의 27%만이 '임신 중 언제든 여성이 원할 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 다른 12%는 임신 첫 6개월 동안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 21%는 낙태를 임신 첫 3개월로 제한하는 데 지지를 표했다. 23%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아기를 임신하거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낙태 제한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3분의 2는(67%) '낙태에 제한을 뒤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제한 없는 낙태 허용을 지지했다. 설문자의 압도적 다수(82%)는 '산모의 건강과 복지, 태아의 생명을 모두 보호하는 법률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 15%는 '법률이 둘 중 하나만 보호하도록 선택해야 한다'고 반대 견해를 취했다. 대다수 응답자는 낙태 수술에 납세자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절반 이상은(57%)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41%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종교적 이유로 낙태에 반대하는 의료인이

낙태를 시행하는 것에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3분의 2(62%)는 '법적으로 요구되어선 안 된다'고 봤다. 대다수 프로라이프 미국인(81%), 공화당원(75%), 무소속(67%) 지지 응답자는 이 입장에 동의했다. 프로초이스 미국인은 이 의견에 절반가량(61%)만 동의했다.

한편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프로라이프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열렸다. 1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여성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프로라이프를 견지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혼모와 젊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입양을 지원하며 보호하겠다"며 "법무부를 개혁해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낙태 반대 시위자 24명 사면하며 한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 임신 중절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시위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임신 중절 반대 활동가 등 24명의 시위자를 사면했다고 크리스체리티티데이(CT)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후보자 시절부터 그가 내세운 약속이기도 했다.



지난 24일 사면된 시위자는 바이든 정부 시절 진료소 입장 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FACE Ac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 시위자는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면받은 사람 중 일부는 수년 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89세가 최고령자로 알려졌다. 70대 시위자도 2명이나 있었다. 시위자가 받은 혐의는 다양했다. 병원을 봉쇄하면서 간호사를 다치게 한 이도 있었다. 병원 밖에서 기도하며 평화적 농성인 사람도, 봉쇄 상황을 온라인으로

방송한 이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짧게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면자들을 "평화적인 생명 옹호 시위자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사면서)에 서명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낙태반대단체인 SBA프로라이프아메리카의 마조리 대네펠서 대표는 바이든 정부 시절 시위자들이 기소당한 것은 정치적이었단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토마스모어협회의 스티브 크랩튼 수석변호사는 "오늘 우리의 위대한 나라에서 자유가 울려 퍼진다"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지워질 수 없지만 오늘의 사면은 정의의 회복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에서는 임신 중절을 제공한 의료진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가 발생해 1994년 FACE 법이 통과됐다.

### 미국서 하루 동안 불법 이민자 1천명 체포...트럼프 "적다" 실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남부 국경뿐만 아니라 북부 시카고까지 미 전역으로 확대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등 다수의 기관이 동원된 대대적 단속 결과 26일 하루 동안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1천명에 달한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전국적으로 956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554명이 구금됐다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단속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애틀랜타,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주 오스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미국 본토를 넘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불법 이민자 체포가 실렸었다.

이날 시카고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며 이날 작전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표적 단속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벼운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는데도 체포됐다는 주장이 이민자 가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속기관 일선에는 "실적이 부족하다"는 상부 압박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ICE 관리들이 행정부로부터 현재 하루 수백명 수준인 체포 실적을 최소 1200~1500명 수준으로 늘리는 지침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는데, 이는 현장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무분별한 단속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WP는 지적했다.

### "루브르가 위기에 처했다" ... 박물관장 호소 왜?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장이 최근 프랑스 정부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박물관 노후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였다. 24일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 루브르 박물관은 노후화된 전시관을 복원·개조해 수많은 예술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파리 일간지 르 파리지앵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장 로랑스 데카르는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백년 된 건물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누수와 예술 작품 보존을 위협하는 온도 변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루브르 궁전은 12세기 후반 지어졌다. 수세기 동안 프랑스 왕들의 공식 거주지로 쓰이다가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로 거처를 옮기면서 1793년 왕실 미술 컬렉션을 위한 박물관이 됐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온실 효과가 심해져 여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 공간이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있다. 때문에 작품 보호는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데카르 관장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련'이 됐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루브르 박물관은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하고, 음식과 위생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II. 칼빈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들에 관한 지식, 이 두 가지는 신실한 교리의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

모든 『기독교강요』 판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이 핵심 문장은 1권 1장 1항에 있다. 1539년에 개정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견실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칼빈의 회심을 촉발한 성경 구절인 로마서 1장 21절(롬 1:18-25)은 이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 다음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앞부분을 요약 발췌한 부분이다.

1.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1)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이시며 의와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진리와 권능과 생명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지혜는 있을 수 없다. 다른 의, 선하심, 자비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권능이나 생명도 있을 수 없다. 1539년에 개정된 『기독교강요』는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가 소유하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견실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칼빈은 자신의 회심을 일으킨 성경구절인 로마서 1장 21절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18-25). 이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시 148:1-14, 단 3:59-63).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다만 그분의 성품 하나만을 보고서도 그분을 섬기고 그의 규율을 지키며 그의 장엄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소유할 것을 요구한다(롬 1:20).

3) 우리는 그분이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계명으로부터 떠난 자들, 모든 일을 행할 때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의 영광에 속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하신다(시 7:9-11, 롬 2:1-16).

4)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관대한 분이심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불행하고 가련한 자가 그의 자비하심으로 피하여 와서 그를 의지할 때 친절하게 받아들이신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 은혜를 구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나누어주고 용서해 주신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기꺼이 도움을 주신다. 당신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사 103:3, 8-11; 사 55:6, 시 25:6-11; 85:5-7, 10)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 우리들 자신에 관한 지식

어떻게 하면 우리들 자신에 관하여 확고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

1)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만저 우리는 우리 모두의 선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음을 배워야 한다(창 1:26절 이하). 이 말은 그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주어졌음을 뜻하며 이 같은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함 위에 굳게 서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2) 그러나 아담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담이 죄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이 형상, 이 하나님과 비슷한 점은 취소되고 말살되었다. 거룩한 은혜가 지닌 모든 유익들, 아담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시킬 수 있었던 모든 선물들이 사라지고 말았다(창 3장 참조). 아담은 그 이후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낯선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 그가 다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던 모든 지혜와 의와 권능과 생명은 박탈당하고 말았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무지, 범죄, 무기력, 죽음, 시련과 같은 죄의 열매들뿐이다(롬 5:12-21; 갈 5:19-21).

3) 이제 인류 모두에게 이런 상실이 찾아왔다

재난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내려왔다. 우리는 그의 씨앗이요 후손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우리는 왜곡되었고 타락했으며 선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유형의 악들을 지향하고 있으며 부패한 욕구로 가득 차 있고 또 거기에 집착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완고한 마음을 보여준다(렘 17:9).

younsuklee@hotmail.com

이성지자의 바ই블 에세이

새해를 살아가는 창조적 삶의 지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격을 안겨준다. 어두운 역사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했다. 격동하는 국내외 경제와 경제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들 가운데서 ‘과연 금년에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미 새해의 한 달을 살아오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는 배고프고 헐벗은 민중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도덕적 부패와 민생의 불안으로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의식에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새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나는 생각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신뢰하는 창조적인 신앙이 필요하겠다고. 그럼 그 창조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고 비참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고, 또 있는 것을 없게 할 수도 없다. 인간사의 애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존재의 근본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창조적인 삶의 지혜이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선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어두움의 세력이 한때 정외처럼 오후된 채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빛의 자녀가 마치 불의처럼 죄인으로 취급되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결이 백일하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창조적인 삶의 지혜이리라.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어두움을 낮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빛을 밤이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지 않는다. 질서와 조화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해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해도 하나님은 아니시다. 진리를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아니시다.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조화와 균형이 깨져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되찾고 조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사는 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창조적인 신앙의 삶이 아닐까.....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New York.

# 뉴저지교협·목사회 공동 주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과 사랑의 실천'



뉴저지교협·목사회 공동 주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후 사진 촬영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돈 목사)와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이정환 목사)가 1월 19일(주일) 오후 5시 한소공교회(정세훈 목사 시무)에서 2025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열었다.

예배는 부회장 허상회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종윤 목사의 경배와 찬양 인도, 권형덕 목사의 기도, 남나나 목사의 성경봉독, 뉴저지남성목회합창단의 특별찬양 후 박상천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박상천 목사는 '하나님의 소리 (민 6:24-26)

라는 제목으로 "얼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 보도록 주신 것이니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과 미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얼굴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조국을 위한 (권기현 목사) △뉴저지교협과 뉴저지목사회를 위한 (이준규 목사) 특별기도가 이어졌고 박상천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하례식은 뉴저지교협 부회장 권형덕 목사의 사회로 진

행되었으며, 박종윤 목사가 선창한 애국가 제창 후, 박상돈 목사와 이정환 목사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뉴저지교협합창단의 축가, 김창길 목사(전 뉴저지교협 회장)의 축사, 홍인석 목사(전 뉴저지교협 회장)의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저지로 부르신 것은 10만여 명의 한인들과 수백만 명의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각 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목사는 "뉴저지 목사회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며 "여러분의 동참과 후원을 통해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길 목사는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축하드린다. 교협과 목사회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며, 선교적, 목회적, 문화적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축사했다.

(영상취재- 흥현숙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장로성가단, 신년감사예배 및 신년하례**  
뉴욕장로성가단은 2월 2일(주일) 오후 5시 디모스 연회장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신년하례를 연다.  
▲ 문의: 917-204-9879

**뉴욕교역자연합회, 2025 신년예배 및 하례회**  
뉴욕교역자연합회(회장 이규형 목사)는 2월 6일(목) 오전 11시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2025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연다.  
▲ 문의: 718-440-2287

**뉴욕실버선교학교 학생모집**  
뉴욕실버선교학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2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주간 매일 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퀸즈한인교회(김바나나 목사 시무)에서 제 39기 뉴욕실버선교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단기선교는 5월 5일(월)부터 10일(토)까지 온두라스에서 사역한다. (의료, 한방, 미용, 안경, 사진, VBS사역 지원자 환영) 선교 관련 저명한 강사와 선교 마인드가 있는 목사 선교사가 주강사이며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는 100불이다. 매 시간 식사를 제공한다.  
▲ 문의: 김경열 목사 917-963-9356, 김형근 장로 646-220-8222



청소년 집회 중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RCA 뉴저지·뉴욕 한인교협, 연합 신년하례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 RCA 뉴저지·뉴욕 한인교협, 연합 신년하례예배 'RCA 교단 내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노력'

RCA 뉴저지한인교협(회장 김중윤 목사), 뉴욕한인교협(회장 안재현 목사)은 1월 27일(월) 오전 10시 뉴저지영광장로교회(정광희 목사 시무)에서 2025년 연합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김중윤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한동원 목사(뉴저지 부회장) 기도, 송호민 목사(뉴저지 회계) 성경봉독, 안재현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안재현 목사는 '앞에 선자, 목사 (시편 23편)'를 주제로 설교하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은 왜 하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고 기름을 부으셨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이는 단순히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식탁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자리까지 인도하며 본을 보이는 존재이어야 한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목자들이여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칠 수 있는 앞에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원도연 목사(뉴저지 총무) 광고와 이풍

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안재현 목사는 한인교회 설립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한인교회 설립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인들로 구성된 노회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현재 RCA 교단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공식적으로 통과되거나 동성애 목사가 배출된 적은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RCA를 떠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여 RCA 안에서 성경적 결혼관과 목회관을 확립하고자 한인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목회자는 회의 중 "RCA 교단 헌법에는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동성 결혼 반대라는 헌법적 입장을 보다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누었다.

(영상취재 흥현숙 기자)

## 뉴욕한인청소년센터, Youth Praise Night 청소년 집회 개최 말씀찬양집회로 1년에 4번 개최 예정, 젊은이여 깨어나라!

뉴욕한인청소년센터(KYCN, 대표 최지호 목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소년을 위한 찬양과 말씀 집회가 1월 17일(금) 아름다운교회(담임 계재광 목사)에서 열렸다. 청소년센터는 팬데믹 이후 영적으로 혼란해 하는 젊은이들을 깨우고 다시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말씀과 찬양집회를 1년에 4번 개최하고 있다.

아담 송 목사(주사랑장로교회 EM 담당)가 인도하는 S.W.A.T.팀의 찬양 인도는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했다. 젊은 청소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뛰며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

PAVLOS SON 전도사(뉴욕장로교회 EM 담당)는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아이들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했다며 집회는 기도회로 이어졌

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된 집회는 밤이 깊어져 10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온전히 찬양과 말씀에 집중된 은혜의 시간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이후 이번까지 9회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교회와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2025년도 10회째 집회는 4월 중순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센터 대표 최지호 목사는 "젊은이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삶과 앞날도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일 년에 4번 집회를 준비한다. 주님께 영광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이 넘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조지아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조지아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

### 제36차 사업총회 및 목회자 가족의 밤, 은혜 속에 성료

조지아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김데이빗 목사)는 1월 19일(주일) 오후 5시 한비전교회(담임 이재원 목사)에서 제36차 사업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연합, 협력,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128명의 목회자와 사모, 자녀들이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연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형근 목사(새생명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연합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깊이를 더했다. 이재원 목사(한비전교회)는 '세월을 아끼라 (렘 5:15-21)'라는 메시지를 통해 "목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두 동일하게 풍랑을 겪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기도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삶을 통해 목회

자가 반석 같은 사역을 세울 수 있다" 라고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부회장 이재원 목사(락스프링스 한인침례교회)의 기도 인도로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총회 장소와 음식으로 섬긴 한비전교회의 부흥과 PK 자녀들의 영적 성장 그리고 2025년 사역을 통해 연합과 부흥을 이루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목회자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과 오케스트라 연주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작년 본 협의회 회장으로 섬긴 최병학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원천호 목사(생명침례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이정석 목사(스나니 한인교회)의 인도로 가족 레크리에이션과 교제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기사제공: 조지아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

죽음의 고통이 나의 원수인가? 그렇다.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셨다 (19-22절). 그는 죽음을 정복하셨다. 암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나는 여차피 죽을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그때도 함께하실 것이다. 그때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때도 나를 안아주시실 것이다. 암 투병 중에도 또 내가 죽는 순간에도 그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사실을 상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 그 사실이 내가 죽음의 시간에도 그를 신뢰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정말로 적절한 체면을 통해서 제대로 배운 셈이다.

나를 성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는 내 속을 살피고 계신다. 내 안의 모든 사악

함,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이나 생각을 뿌리째 뽑으신다(23-24절). 암을 사용하여 나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안의 악을 드러내고 제거하신다. 그 모든 과정은 항상 사랑과 인내 그리고 친절과 자비함으로 이뤄진다.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듯이 말이다. 내 눈물은 이제 그의 병에 담겼다(시 56:8).

나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성화는 현재 비참할 수준으로 불완전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모자람이 영원 속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는 약속어음을 주셨다. 모든 의문은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죄는 사라질 것이다. 마침내 나는 깨끗해질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내가 암을 즐기고 있다고?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암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이다.

by David Ayers, TGC

## 내게 기쁨을 가져다준 암

(2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게 훨씬, 훨씬 더 기쁜 일이다.

###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두렵고도 놀랐게, 그는 나를 만드셨다(13-16절). 세심하게 또 정성스럽게 내 모든 세포를 만드시고 또한 나의 매일이 영원 속에서 의미가 있도록 미리 정하셨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원을 미리 사는 나의 하루는 암세포까지 포함한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내 안에 암세포를 두셨다. 그에게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오로지 나의 몫이다. 그

에게는 당황이나 의심 또는 두려움이 있을 리 없다. 그것들도 오로지 나의 몫이다. 암을 포함한 내 몸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그의 뜻이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암에 걸렸다고 화를 내겠는가? 지금까지 내 몸은 내게 최선을 다했다. 시종일관 나를 섬겼다. 나로 하여금 소중한 자손을 낳게 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는 소명을 다하도록 해주었다.

나의 DNA, 모든 세포, 그리고 모든 세부 요소는 내가 바라거나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기에는 분노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슬픔? 당연히 느낀다. 두려움? 당연히 느낀다. 하지만 분노는 없다.

나를 위해서 정복하시는 하나님

## 피종진 목사 1월 부흥성회

- 순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University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수) Special Blessing Event MT  
2(목) 오전 World 기독교총연합회(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장소: 양주시 시온수양관(원장 정영민 목사) 의정부 주님의교회(임수연 목사) 010-7721-2286  
주최: 地宜協 (이사장 강영준 목사, 대표총재 안창남 목사)  
4(토) 오전 Tent Makers Mission(대표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연합신년하례성회(장소: 서울 여전도연합회관)  
5(주) 오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총대성 동문회장 취임- 동영성 총회대제자) 대한대학교 연부협(총대성 동문회장 취임) 신년축복성회  
5(주) 저녁 장소: 오산리교회(신기남목사) 신년축복성회  
장소: 서울한영대학교(총장 안영준 목사) 010-2009-7272  
서울 주님의교회(배성수 목사)010-3065-7825  
주최: 작은자성심교회(대표회장 양우성목사)  
6(월)~7(화)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유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총회 및 신년하례 장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010-5372-1691  
9(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선상축복대성회 041-852-2211  
10(금) 오전 국민일보 국부협 신년하례 및 기도회(총재 고충선 목사) 010-3899-0691  
11(토) 오전 부산천광교회 주최: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임동철 목사) 010-7407-9958  
오산리교회(신기남목사) 신년축복성회  
주최: 한국기독교부흥사단(총연합회(준비위원장 김우정 목사) 010-8998-9141  
14(화)~18(토)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Thailand  
19(주) 저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총대성 동문회장 취임) 예배 사산 (주)대한국(대표 최홍준) 010-5422-3705  
주최: 한국기독교성경연구원(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21(화)~22(수) 뉴욕선교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22(수) 저녁 연세대학교 연부협(총대성 동문회장 취임) 신년축복성회  
장소: 오산리교회(신기남목사) 신년축복성회  
23(목) 오전 서울대학교 총동문회(총대성 동문회장 취임) 신년하례회 장소: 서울롯데호텔 스파이아비블룸 풀너머교회(김현수 목사) 010-7667-4719  
24(목) 오전 주최: World 기독교 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김현수 목사) 서울한영대학교 / 총대성 (주최: 제이앤제이인 세계복음화협의회 & 국민일보) Special Blessing Event MT  
24(목) 오후 25(토) 새창원은교회(피은혜 목사) 구정축복성회 010-4586-8642  
27(월)~29(수) 서울 성공교회 주최: 요한교회(단장 김동진 목사) 010-7293-3217

www.nasca.or.kr  
02)3411-9191  
02)4011-7770



신승훈 목사, 김인찬 목사

### 주님의 영광 교회, 아름다운 동행

#### 신승훈, 김인찬 공동담임사역 결정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지난 22일 제직 모임을 통해 신승훈 목사가 김인찬 수석 부목사를 공동담임으로 제안했고, 모든 제직들이 이에 동의함으로 신승훈, 김인찬 공동담임목사 사역이 시작된다.

신승훈 담임목사는 “후임을 찾는 일을 기도하면서 부목사 중에 찾아야겠다는 감동을 2년 전에 받았다”며 “이를 위해 목회협력위원 장로들에게 후임 목사를 구하는 일에 청빙과 부목사중에서 구하는 건에 대한 장단점을 조사 연구하라고 부

탁했고 지난 5개월간 목회 협력 위원회 장로들이 조사한 결과, 청빙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부목사 중에서 세우면 더 좋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22일 제직 모임을 갖고 공동담임으로 김인찬 목사를 결정했다.

신목사는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100%는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기도하고, 격려하며,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장점을 더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김목사님을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공동 담임으로 동역이 필요하며 공동 담임 기간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해 오고 있는 김인찬 목사의 가족은 김미선 사모와 아들 예준(대학생)이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재미총신대 남가주총동문회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재미 총신대 남가주 총동문회 신년하례회 및 학술세미나

#### “설교한편을 위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수고를 다해야”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이정현 목사) 신년하례회 및 학술세미나가 27일(월) 오전 11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김경훈 목사)에서 열렸다. 임군만 목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박노철 목사 기도, 바리톤 김삼도 목사 특송, 이정현 목사의 ‘설교자의 스피치(눅 24:31-32)’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정현 목사는 “신학생이나 목사들은 평생 말씀사역을 하게 된다. 설교자는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설교한편을 만들기 위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수고를 다해야 한다. 설교를 통해 진리의 빛을 비추야 하며 설

교가 전달될 때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목사의 스피치는 첫째, 성경을 풀어줄 때 본문말씀을 설명을 잘해야 한다. 둘째, 전달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교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한다”라 말했다. 정고영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열린 2부 목회자 학술세미나는 이정현 박사(개혁장로회 신학대학원 총장)가 ‘올바른 축도론’을 김선중 박사(개혁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가 ‘목회자의 도전과 영광’ 주제로 강의했다. 김선중 박사는 “목회에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한 압박감, 두 번째는 목회방법에 있어서 빨리 성공하

려는 욕망, 목회의 자세에 있어서는 실패와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자세”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목회를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첫째 사역의 목표를 다음세대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힘을 썼다. 두 번째 멘토를 모시고 있었던 것은 유익했다. 셋째 계속 공부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목회자들과의 독서모임과 설교모임은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박사는 고후13:13, 민6:24-26 등 성경구절을 근거로 축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축도는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등 교단별로 표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축도를 축복기도로 보느냐 선포를 하느냐 등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축도는 축복기도보다 축복의 선포적 성격이 강하다.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복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며 “축도의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며 불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박사는 “신학교에서 축도에 대한 강의는 없다. 따라서 축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OC목사회 회장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원안은 이날 취임한 강문수 목사가 취임사를 하는 모습

### OC목사회 이취임 예배

#### “어렵고 힘든 시기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 하자”

OC목사회 이취임 예배가 26일(주일) 오후 5시 갓스패밀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문수 회장은 “저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다”라고 운을 뗀 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진 소명을 깨닫고 명예가 아닌 명예를 매고 나아가 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전쟁터이다. 회원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OC에 목사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섬기는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수석부회장 정찬근 목사(에심교회) 사회로 시작된 이날 1부 예배는 증경회장 손태정 목사(주성선교회) 기도, 박정기 목사(더락한인교회) 성경봉독, OC 여성목사회 특별찬양, 김용철 목사(전 캘리포니아 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칼빈신학대 교수)의 ‘목회자의 사명(행 20:24-28)’ 제목의 말씀이 있었다. 김용철 목사는 “이민목회는 특수목회이며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 이민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이다. 미주 한인동포 70%가 교회 출석한다. 그중 많은 수가 예수 믿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직분자들이 너무 많다. 이민생활은 광야 같은 생활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내면의 갈등을 가진 채 교회에 나온다. 교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어야 한다. 교회 밖에만 전도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안에 전도대상자가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강단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강단은 하나님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 강단이 회복되어야 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이민교회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2부 회장 이취임식은 심상은 목사(OC교협 증경회장/갈보리선교회)와 이창남 목사(OC교협회장/주님의손길교회) 축사, 김영찬 목사(증경회장/효사랑교회) 권면, 이원석 목사(하사랑교회) 이임사, 강문수 목사 취임사, 공로패 증정, 감사패증정, 목사모합찬양, 특별찬양, 47대 회장 및 임원소개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권영호 목사(남가주새생명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신년축복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하근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 “교회에 애착을 갖고 교회역사에 남는 사람 되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신년축복성회를 ‘0점 인생 명품 인생’이라는 주제로 23일(목)부터 26일(주일)까지

하근수 목사(동탄시온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26일(주일) 오후 2시 열린 마지막 성회에서 하근수

목사는 ‘역사에 남는 사람들(롬 16: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근수 목사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교회역사에 남아야 한다. 은혜한인교회 43년 역사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은혜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한다. 은혜한인교회는 우리교회가 되어야 하며 애착을 가져야 한다. 둘째 목회자의 목회사역에 남아야 한다.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이 명품성도가 되고 명품으로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3부 예배시간에도 하근수 목사가 ‘0점인생, 명품인생(벤전 1:3-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OC전도회연합회 이취임예배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 원안은 이날 회장 취임한 한성준 집사가 이임 회장인 신용 집사로부터 협회기를 이양받고 흔들고 있는 모습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취임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

####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취임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25일(토) 오후 4시에 열렸다. 한성준 회장은 “3년동안 연합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음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은 선한 일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 같다. 찬양제와 골프대회를 통해 MK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 45년 역사 속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다.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도영 이사장은 “전도회 연합회가 45년 역사가 된것은 흔치않은 것이다. 45년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회원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연합사역이 잘 진행되었다. 역대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유경 권사(전도회연합회 부이사장) 사회로 시작된 신년하례 감사예배는 한창준 장로(전도회연합회 이사) 대표기도, 감사한인교회 사랑성가대 특

송, 구봉주 목사의 누가복음 7:36-38 말씀으로 이어졌다. 구봉주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빚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지극히 섬겨드릴 수 있다. 한성준 회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에 전도연합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너 전성진 목사가 특송, 이임회장 신용 집사의 이임사, 신임회장 한성준 집사와 신임 이사장 김도영 장로가 취임인사, 취임패 증정, 연합회기 이양,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한성준 회장 연합회 임원소개, 민경엽 목사(OC교협 이사장)와 조이스 안부에나팍 시장의 축사, 영길 연합회원원 영상축사, 무궁화합창단과 소프라노 지경 교수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양민국 목사(전도회연합회 조대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한인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예배에서 신동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나성한인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예배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창립 49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19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했다. 조이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동철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11시 예배는 임종

훈 장로 기도, 호산나찬양대 찬양, 바리톤 김경태 집사 헌금송으로 이어졌다. 이어 신동철 목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히 12: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동철 목사는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째,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교회이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셋째, 사랑의 실천과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교우 한분 한분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사랑과 실천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시무권사와 안수집사 은퇴식,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졌다. 이어 본교회 2대 담임 김영진 목사가 축사와 권면을 했다. 이날 예배는 신동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플라워마운드교회 탄생 26주년 감사주일예배에서 최승민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플라워마운드교회 탄생 26주년 감사예배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최승민 목사) 탄생 26주년 감사주일예배를 지난 19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했다. 최승민 목사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지 26주년을 기념하는 교회 탄생 기념 주일”이라며 “플라워마운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부 예배 시간인 11시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린 예배는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되었으며 본교회 교역자들이 특송했다. 이날 최승민 담임목사가 ‘성령이 충

만한 교회(행 2:1-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가득한 교회”라며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며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26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교회 탄생 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온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감신합창단 LA지역 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서 열렸다. 합창단원들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 감신합창단 미주순회공연 LA에서 성황리에 막 내려

“참석자들 함께 축복송 부르며 후배들을 향한 감사와 격려”

감리교 신학대학교(총장 유경동 박사) 합창단(MTU Choir 지휘 김용화)이 미주 순회공연 마지막 일정인 LA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총 36명(교수진 포함 41명)으로 구성된 남녀 합창단원들은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지역, 그리고 시카고를 거쳐 지난 20일 LA도착하여 22일(수)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연주회는 ‘I Love You, Lord’로 연주회를 시작하여 ‘I Will Wait For You’ 등 아름다운 찬양곡을 참가자들에게 선사했다. 또 남성, 여성 합창단의 무대를 꾸미기도 했고 한국 가요를 섞어 참가자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한편 신뜻한 몸동작을 곁들이며 20대의 발랄하고 싱그러운 목소리가 교회의 울려 퍼지자 청중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반주자 한송이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합창단원들이 회중석을 둘러싸며 축복송을 부를 때 자리에

앉아 있던 동문들과 예배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눈시울을 붉히며 후배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손짓을 건네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연주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이영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용근 목사(감신대 서부지역 동문회장)가 기도하고 유경동 총장이 설교에 나섰다. 유 총장은 “한국의 신학대학교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감신대는 신학 전공으로만 1200여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정원 미달 사태도 겪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도 모교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 선후배 동문들 때문”이라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강신욱 목사(강신욱 내과병원)와 송계영 목사(감신대 북가주 동문회장)가 후배들을 위한 격려사를, 유경동 총장은 김용근 동문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이지선 교수가 간증하고 있다

### 새생명비전교회 이지선 교수 초청 간증집회

“우리인생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이지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초청 간증집회가 24일(금) 오후 7시30분 개최 돼, ‘상처투성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법(이사야 61:3)’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지선 교수는 자신이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투병을 하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가며 간증을 이어갔다. 그는 “비록 아팠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힘들고 외로운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메시지를 들은 순간 여기가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피엔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피엔딩을 살고 싶었다. 인생이라는 것이 1분 1초 뒤를 알지 못하는데 1년 뒤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계획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영역인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피엔딩을 살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나를 화상환자 희망 없는 자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내 인생을 다시 쓰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말이 불편해졌다. 피해자가 되었지만 수많은 어둠의 나날을 지냈던 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고 싶지 않았다”며 “사고를 만났다는 표현을 하던 순간부터 사고와 헤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뒤훑아 들만한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덮여두었던 흉터마저 하나님이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인생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인생을 내어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풀무원의 특별연주가 있었다. 송 선교사는 내고향,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다. 이날 집회는 강준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란 제목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성엽 목사

###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 축복성회 열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자”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김성엽 목사(아르헨티나 제일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24일(금)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 집회는 김성훈 장로의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후 김성엽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나의 진짜 모습’(창 32: 27-28)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지 않은가?”라고 질문한 뒤, 본문에 나타난 야곱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옴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볼 수 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매달리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물질을 다스리는 성도, 우리의 연합함을 성령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자”고 강권했다. 이날 예배는 박규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성엽 목사는 아르헨티나 명문대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약대를 졸업하고,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의 다우니제일교회, 퀸즈장로교회, 워싱턴의 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제일교회에서 설립한 후후이제일학교(유치원~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아르헨티나최고의 명문 미션스쿨로 발전시켰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테일러김 목사가 각 공동체의 리더들의 성향과 장단점을 제시해 주기위해 게임에 걸린 이들을 단에 올려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남가주든든한교회 리더십세미나 개최

“나는 어떤 부류의 리더가 될 것인가?”

남가주든든한교회 제직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2시 김테일러 목사(김테일러 목사 소령/채플린, 동부 사랑의교회 EM지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김테일러 목사는 ‘제직의 의미’를 질문하고 설명한 뒤 “리더는 이끄는 사람으로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파워를 미치는 사람이고, 리더십은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동기부여를 하여 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고 먼저 정의를 설명했다. 그는 “교회의 리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권위주의와 같이 앞서서 말로 지시하는 리더가 있고, 앞장서서 교인들과 함께 움직이는 리더가 있는데 세분하면 권위주의(독재형), 참여형(민주형), 위임형(자유방임형), 비전형(꿈만 제공),

코치형이 있고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군대의 상황을 비교하며 재미있게 강의했다. 이어 그는 참석자들을 6조로 나누어 게임을 통해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그 팀의 성향과 팀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설명하며 “모든 리더는 자기 팀의 모습을 믿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풀어주고 함께 이뤄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리더는 팀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들려주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딱딱한 세미나가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 속에서 발견한 깊은 진리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테일러 목사는 30세에 미국으로 이민 와 늦깎이 미국 군인이 되고 20년째 군목으로 군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소령으로 머지않아 제대를 앞두고 있다.

(이성자 기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신년대부흥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미주복음방송의 2025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성 목사)의 2025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 남가주 6개 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이민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양 작곡가 겸 예배인도자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일정은 2월 14(금)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15일(토) 오후 6시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16(주일) 오후 6시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김도일 목사), 21(금) 오후 7시 얼바인운누리교회(박신웅 목사), 22일(토) 오후 6시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 23(주일) 오후 6시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 문의: (714)484-1190

### 글로벌비전교회 개척감사예배

글로벌비전교회(담임 구자혁 목사) 개척감사예배가 2월 2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갖는다. 글로벌비전교회 장소는 734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lifornia 90621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globalvision.church>이다.

▲ 문의: (949)667-0264, (714)393-4595

### 덴버제자교회 2대 담임목사 청빙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위치한 덴버제자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미국장로교회(PCA) 서남노회에 속한 교회이다. 2025년 담임목사 은퇴 일정으로 새로운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중언어(한어/영어)가능자로 미국내 체류 및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목사 안수 후 북미지역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이다. 소정의 양식과 구비서류는 덴버 제자교회 웹사이트 ([denverjea.org](http://denverjea.org))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제출 마감일은 2월 28(금)일까지이며 보낼 곳은 이메일([denverjea8390@gmail.com](mailto:denverjea8390@gmail.com)), 혹은 우편(Choong Joh, 9249 S. Broadway Suite 200, Room 379 Highlands Ranch, Colorado, 80129)이다.

▲ 문의: [denverjea8390@gmail.com](mailto:denverjea8390@gmail.com)

### 남가주 목회자를 위한 이단 세미나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급증하는 이단 단체들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가주동신교회, 나성영락교회, 미주바이블백신센터, 미주복음방송 공동 주최로 ‘남가주 목회자를 위한 이단 세미나’가 오는 2월 18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 내 이단의 실체와 교회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과거 20년간 신천지에서 총회 교육장 및 담임 강사로 활동하다 탈퇴 후 현재 예방합동 이단 상담소장과 구리초대교회 담임목사로써 이단 연구와 상담에 힘쓰고 있는 신현욱 목사. 또한 이날, 미주 내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미주바이블백신센터’의 센터장인 에스라 김 목사가 강의 전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 문의: (714)484-1190

###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는 전인 코칭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2월3일(월)과 11일(화) 저녁 7시에 줌으로 갖는다. 또한 대면모임을 15일(토) 오전 9시 갯스패밀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 6551 Western Ave, Buena Park, CA)에서 갖는다. 웹사이트는 [www.giftcoachinginstitute.com](http://www.giftcoachinginstitute.com) 에서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실수 있다.

▲ 문의: (714)298-1115

### 월서연합감리교회 신년대부흥회

“성도, 세상 속에 사랑으로 사는 단초를 만드는 사람”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는 신년대부흥회를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은퇴)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영성 목사의 사회로 26일(주일) 오전 11시45분에 시작된 마지막 집회는 이진세 장로가 기도,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기석 목사가 ‘희망의 뿌리(창 23:16-20)’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장례 이야기지만 역설적이게도 희망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얻었다. 그리고 12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라는 사라는 사랑을 사라는 사랑을 매달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과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를 슬픔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단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안장했기에 그곳을 떠나지 못했고 그의 후손

들도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사라의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단초가 되었다. 사라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인해 하나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때때로 삶을 살다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다.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비애가 아주 크다. 세상이 혼탁하지만 희망의 단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것도 인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욕망에 겨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세상 속에 사랑으로 사는 단초를 만드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망가진 세상을 고치길 원하신다. 그 싹을 아름답게 키워 이 나라가 조국이 평화롭고 생명이 넘치게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파송찬송을 부른뒤 김기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예장합동 목사장로기도회 준비 "땀 흘렸다"

3000여명 참석, 숙소부터 강사진 선정 등 논의 시작

'2025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목장기도회)'가 본격적으로 땀을 흘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해마다 여는 목장기도회는 교단 정기총회와 맞먹는 규모의 대형 집회로 총회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사회를 향한 신앙적 메시지를 선포해 왔다. 교단 신학의 정립과 교회 부흥을 위해 61년 전인 1964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열리는 제62회 목장기

도회는 오는 5월13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에서 진행된다. 전국목사장로기도회준비위원회(준비위·위원장 예동열 목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숙소와 프로그램, 강사진 선정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준비위는 목사들과 장로들을 비롯해 기도회 준비팀 등 3000여명의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해운대 인근 호텔 다섯 곳을 후보군으로 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전체 강의와 트랙별 강의, 저녁 집회 등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강사 선정도 시작됐다. 무엇보다 올해 목장기도회는 사모와 교회 권사들도 초청할 예정이어서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강사' 선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23일 총회회관에서 총회 미래교육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 위원 위촉식을 열고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에 뿌리를 둔 미래교육위원회는 최근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교육'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세웠다. 이날 설교한 김종혁 총회장은 "새로 단장한 위원회는 단순히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적 비전을 실현하는 거룩한 사역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109회기 동안 '스말로그 교사대학'과 유소년 '풋살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스말로그는 스마트와 아날로그를 결합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 "설에 더 서러운 이웃·해외선교사 부모에 사랑을 배달해요"

오륜·수영로교회 명절 사역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진 설 연휴, 더 외로운 이들이 있다.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의 가족, 가족을 두고 떠나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 한부모가정의 아이들, 홀로 사는 노인 등이다. 한국교회 곳곳에서 이들을 찾아가 만나고 사랑을 전하는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오륜교회(주경훈 목사)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세계 각국에서 사역 중인 파송 선교사 부모님을 찾아가 명절 인사를 드리는 '해피 미션너리 패런츠(Happy Missionary Parents)' 사역을 진행한다.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의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가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선교사 부모를 찾아가 안부를 전하고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선교국장 고일국 목사는 "해외

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전해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였다"며 "명절마다 귀국해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일일 가족'이 돼 드리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에는 성도들이 광주 서천 당진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는 24명의 선교사 부모님을 찾아가 교회에서 준비한 건강식품과 개인적으로 마련한 선물을 전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 성도들은 매년 명절마다 '사랑 배달부'로 변신한다. 27일 교회 분수대 광장에 모여 성도들이 손수 빚은 만두를 넣은 '떡만두국 밀키트'를 라이더가 돼 설날 선물과 함께 직접 배달하는 것이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탈북

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이 대상이다. 이규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랑'"이라며 "'수영로 라이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낮고 소외된 곳으로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타국에서 생활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랑 나눔도 활발하다. 경기도 용인 더열방교회(이승환 목사)는 주일인 이날 오후 특별한 설맞이 예배를 마련했다. 교회 인근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가족이 되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온기를 전하는 예배다. 온누리 M미션(김태안 목사)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주민 설 집회를 진행한다. 김포 남양주 화성 평택 등 경기 지역 내 M센터에서 네팔 스리랑카 아랍 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별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를 담당할 임현주 선교사는 "이주민이 특히 외로울 수 있는 이 기간에 교회가 위로와 힘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글로벌엘리트재단의 엘리트문화센터는 다음 달 1일 서울대 가온홀과 체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설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국악과 부채춤, 난타 공연을 하며 학생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다.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북주머니나 인절미 만들기,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



### "치매 예방, 유언장 작성... 노년층 위한 맞춤형 교육에 교단 나선다"

기성, 초고령사회 맞아 시니어 위한 교재 발간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교단들도 노년층을 위한 영성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류승동 목사)가 교회 핵심 세대인 노년층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주는 '시니어 에센스 시리즈'(사랑마루)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성은 이번 회기 주된 사역 중 하나로 '노년 목회'로 정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에서 시니어에 초점을 뒀다. 이에 발맞춰 출간한 '시니어 에센스 시리즈'는 총 4권으로 노년 담당 지도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 1권과 노년을 위한 워크북

3권으로 이뤄졌다. 다른 노년 교재와 차이점은 단순히 성경 공부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건강관리, 은퇴 후 생활, 장례 준비 등 노년의 실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 '소망' '소망'이라는 대 주제 아래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돕는다. 이 교재는 서울 동안성결교회(류태우 목사)가 이미 적용해 성공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도 차별점이 있다. 교재 개발에 참여한 류태우 목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치매 예방이나 유언장 작성과 같은 노년층에게 꼭 필요

한 교육을 하다 보니 성도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고 인기가 높다"며 "요즘 노년층은 예전과 달리 재력 건강 의욕 등을 모두 갖춘 '액티브 시니어'인만큼 교회가 노년층을 섬기는 대상이 아닌 사역을 같이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동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승범 서울신대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발달과업이 있듯이 노년기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도 발달과업이 있다"면서 "영적 성장은 물론 인간발달학 측면에서 접근한 교재 내용을 통해 노년들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나 이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교육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성은 '신년 목회계획을 위한 담임목사 세미나'를 노년 목회를 중심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오는 3월 전국 5개 권역에서 열릴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도 노년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창국 총무는 "향후 노년 목회를 위한 강의자료를 pdf와 ppt 파일로 구성해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각 교회에서 노년 성도가 더 활력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장총, 설 맞아 한부모가족시설 찾아 격려

권순웅 대표회장 "생명 귀하게 여기며 자립하려는 이들의 꿈 지원할 것"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부모가족 품기에 나섰다. 한장총은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꿈나무(박미자 원장)를 방문해 한부모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순웅 대표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부모가족들의 공동생활처인 꿈나무를 방문하

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생명경시 시대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립을 꿈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환난을 피하고 싶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며 "환난 겪은 한부모가족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보상이 있을 줄 알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자 원장은 "꿈나무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2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취업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현재 다섯 가정에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시는 한장총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장총은 이날 행사에 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선(상임회장) 장인호(서기) 김고현(협동총무) 목사가 참석했다.



### 광주 고려인 동포 어린이들에 전해진 따뜻한 설 선물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 학용품과 간식 등 전달

설 명절을 맞아 광주 지역에 거주 중인 고려인 후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대표 전득안 목사)는 지난 21일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센터를 찾아 고려인 동포 어린이 50명에게 학용품과 간식 등이 담긴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 따라

면 월곡동과 인근 지역에는 약 5500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50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로,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은 이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문화로, 단순히 휴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에 한국가스공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설 명절이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새해 덕담을 나누는 날임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학용품과 간식이 가득 담긴 선물 상자를 받은 텐 소피아(11)양은 "설날이 무엇인지 몰랐고,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한국 어른들께서 직접 선물을 주시고 명절의 의미를 설명해주셔서 매우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는 또 한국가스공사 추이 센터 내 '놀이'는 작은 도서관'에 러시아어와 한국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600만원 상당의 기금도 지원했다고 전했다.

전득안 목사는 "고려인 아동들에게 설 명절의 의미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한국가스공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도서관 지원 덕분에 고려인 어린이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러시아 문화를 포함한 필요한 책을 접할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1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신다(롬 10:14-15 참조).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자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으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 5:20)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려는 열정이 없거나,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가정하는 냉정한 예정론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신학적 입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원래 추종자들에게는 이질적이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양립주의자들

중에서는 가끔 극단적 칼빈주의 자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양립주의자"라고 부른다. 사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양립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양립주의를 이해한다.) 그들은 마치 양립주의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발명한 것처럼 인간의 선택을 최소화한다. 양립주의자라면 마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인간의 의미 있는 선택을 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한다고 암시하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가? 스스로 선택하

는 피조물로 가득 찬 우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폭두각시 인형 조종사로 보는 것보다 그를 더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는 얼마든지 폭두각시 인형 조종사가 되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줄을 주권적으로 잡아당겨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행하실 것이다. 물론 말씀 중에는 맥락에서 따로 떼어서 보는 경우에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전체 성경의 더 큰 맥락에서도, 또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듣는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미 있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내는 폭과 깊이와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은 크게 놀랄 것이다.

by Randy Alcorn, TGC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변화하는 선교사의 역할 (2)

옹호와 사회 정의에 민감한 선교사

선교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선교 현지의 빈곤, 불평등, 인권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교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난 세기의 전통적인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복음전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지의 성도들이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의 역할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개인전도 강조는 많은 개종자들과 조직 교회를 탄생시켰지만 현지 교회들이 사회 정의나 사회 개혁에 불감증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다양한 선교사의 역할 가운데 사회 정의를 옹호함으로써 선교사들은 복음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여주며,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노력을 현지의 개종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현장에서 실천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욱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는 신학자들의 소리보다는 삶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정의를 실천하는 선교사의 삶에서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선교사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의 가장 기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복음을 다양한 문화적 특



내에서 통합하는 과정인 문화 적응을 강조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모범을 보였던 현지 전통과 관행을 존중하고 가지 있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문화적응의 노력은 기독교 메시지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도록 길을 닦습니다. 문화 적응에 대한 다양한 훈련들이 절실하게 필요하 이유입니다. 자신의 문화 우월성을 가지고 타문화를 접할 때에 일어난 실패의 역사는 식민

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선교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지 못하고 행해지는 무례한 선교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반기독교적인 반감을 더욱 키웁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욱 단기 선교가 활성화 됨으로 인하여 장기 파송선교사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현상은 선교사들의 타문화 적응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타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선교자원의 심각한 감소로 말미암아 전체 선교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응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하는 일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선교사

현대의 선교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래는 선교 활동을 변혁시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선교사들은 전통적인 선교 활동이 제한된 지역을

포함한 더 넓은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개인들과 소통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음 전파를 힘써야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언어권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배, 성경 공부, 신앙 교육 등을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신자들 간의 교류와 지지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시대의 선교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회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디지털 도구 활용법과 온라인 사역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 선교 전략을 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T 전문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등과 협력하여 질 높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교회들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단순한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기술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자원을 인식하고 그들의 은사들을 존중하고 대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 재정적인 보상이 많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많은 선의의 성도들이 가진 재능을 바로 인정하고 사명감을 부여한다면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도 좋은 디지털 선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은 디지털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식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 또는 외부의 IT 및 미디어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지원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선교는 특정인만의 사역으로 국한 시키지 말고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선교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환경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교사들은 창조물 돌봄을 그들의 사역에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고, 신앙의 표현으로서 환경 관리를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1세기의 선교사들은 통합적 변화의 중개자이며 촉매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멘토와 위조자로서 현지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타문화에 존중하며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전통적인 전도를 넘어 사회 발전, 디지털 참여, 정의와 환경 관리에 대한 옹호를 포함하여, 오늘날 사회에서 복음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투자자를 아끼지 않고 잘 훈련된 장기 선교사들을 배출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디지털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dr.yongcho@gmail.com

## C.S 루이스

강태광 목사  
(월드세어USA대표)



## C.S. 루이스와 포스트모더니즘

1848년에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은 <공산당 선언> 서두에 "지금 유럽에 새로운 유령이 출현했다"라고 쓰여 있다. 이어서 등장하는 문장에서 "그 유령이 바로 공산주의 유령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공산주의 선언은 23페이지에 불과한 문서이지만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그야말로 공산주의 유령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1981년 10월 프랑스의 유력 언론인 <르몽드>는 140여년 전의 <공산당 선언>의 첫머리를 흉내 내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을 알렸다. "지금 유럽에 또 하나의 유령이 출몰했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다."라고 보도했다. 그 당시 이미 유럽 사회는 상당 부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21세기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가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아래에 있다.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는 용어가 건축, 문학, 무학, 예술, 영화, 과학, 종교, 철학, 사회이론, 신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현상이 아니고 다양한 현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과 철학을 아우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개별성, 다양성, 특수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철학과 문화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종교에 적용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된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부정당하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가 존중받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종교 다원주의는 어느 이단보다 더 무섭고 해악이 크다. 한국 집신대학 김중걸 교수는 "현대교회 가장 어렵고 보편적인 문제가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상대주의(Relativism)와 다원주의(pluralism)는 기독교

교의 성경과 교리의 권위를 부정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사조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또 절대성을 주장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철학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의 선교를 위협한다.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 담론(Meta Narrative)을 거부한다. 거대 담론의 거부는 기독교에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거대 담론의 종교다. 하나님의 섭리, 창조역사, 구속사 그리고 세계 선교 담론은 역사와 우주를 담는 거대 담론이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선교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테면 선교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다양한 종교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기존의 종교가 있는 지역에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는 의미가 없다.

C.S. 연구소 수석 연구원과 믿음, 일 그리고 경제 연구소(Institute for Faith, Work, & Economics) 부소장을 지냈던 C.S. 루이스 연구가인 아츠 린즐리(Art Lindsley) 박사는 포스트모더니즘과 C.S. 루이스의 관계를 연구했다. 아츠 린즐리 박사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C.S.루이스의 견해"라는 소논문에서 C.S. 루이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이 만개한 시절에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C.S. 루이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고 소개한다. 아츠 린즐리 박사는 C.S. 루이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을 한편으로 수용했고, 한편으로는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루이스 시절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과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전제해야 한다. 먼저 C.S. 루이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한 부분을 정

리해 보자. 첫째로 루이스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식으로 실제(Reality)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과 C.S. 루이스가 같다. 둘째로 관점이 시야를 결정한다는 점을 포스트모더니즘과 루이스는 공유한다. 삶의 자리와 인격이 관점(perspective)을 결정한다. 셋째는 우리 관점(Perspective)이 우리 역사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C.S. 루이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견해다. 넷째 루이스의 신관은 완전하지 않다는 견해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다. 루이스는 "우리의 신관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문화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포스트모더니즘과 C.S. 루이스가 공유한다. 다음은 C.S. 루이스가 당시 영국 지식층이 공유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 중에 수용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첫째로 루이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절대 진리의 부재를 부정한다. 루이스 자신이 회의론자로 불린자가 되었다가 회심했다. 그는 자신이 절대 진리인 기독교 복음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했다. 둘째로 C.S. 루이스는 벌버리즘(Bulverism)을 언급하면서 회의론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위험을 지적한다. 개성과 상대주의가 특징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의 가치가 개인의 판단과 생각에 달려

다고 주장한다. 반면 C.S. 루이스는 이런 선입견으로 상대를 폄하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천박한 벌버리즘의 약점을 지적한다. 셋째로 C.S. 루이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부분 진리를 전체 진리로 과장하는 것을 지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는 문화의 영향도 과장하고, 객관주의의 문제도 과장하고, 해석의 어려움도 과장하고, 문화적 한계 극복의 어려움도 과장한다. 루이스는 이런 과장이 옳지 않음을 강하게 지적한다. C.S. 루이스의 작품들을 정독하고 분석한 일본의 학자 교코 유아사(Kyoko Yuasa)는 루이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작품에 남겨 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C.S. 루이스는 자기 작품에 기독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남겨 두었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진취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했고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의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일견 성경과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반기독교적이다. 루이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틈새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다. 루이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했다면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선구자요 개척자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보좌로 나가는 관문 (삼상 30:1-20) 찬 352장

에매한 시험을 모면한 안도감도 시글락에 돌아왔을 땐 큰 슬픔으로 바뀌 켜졌습니다. 다윗 생애에 가장 큰 시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침략으로 진영이 모두 불타고 모든 처자식이 잡혀갔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까닭 없는 고난이 그로 이스라엘의 보좌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했나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심복들마저도 다윗을 쳐 죽이려는 극한 상황을 당할 때 형언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둘째,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 위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께 모두 맡기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화 의를 세우는 다윗 (삼상 30:21-30) 찬 403장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의의 노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하나님의 의를 모든 생활에 세워가는 것이 신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떻게 그는 의를 세웠습니까? 첫째, 잃은 것을 되찾아 온 전리품은 출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되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복

이 따라옵니다. 둘째, 유다 장로들에게 그 탈취물을 보냈습니다. 망명 생활 중, 여호와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율법을 따라 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종의 순수한 의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그의 의인 성경을 바로 알고 나 자신부터 작은 일부터 의를 따릅니다.

수 사울의 죽음 (삼상 31:1-13) 찬 183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그의 아들들은 물론 자신까지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탐욕의 삶은 사망이란 것입니다.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얻어도 자기 명예와 탐욕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울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잠된 회개의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손이 정말 두려운 사실

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의리를 배반하고 신접자를 찾는 타락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은 심판으로 임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구원으로 허락된 인간 왕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의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목 성령을 경외하라(삼하 1:1-16) 찬 174장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 상급을 바라고 면류관과 팔자를 증거물로 가져왔을 때 다윗의 여호와 경외신앙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첫째, 아말렉 사람을 죽임으로 의를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을 대한 경홀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멸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자기 원수를 죽인 공로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

름 부음에 대한 존중심이 특별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도가 진정한 동기였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을 경외함이 참 믿음입니다. 조용히 일하시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친히 세우시는 그의 인격적 역사를 인정하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금 다윗의 마음 (삼하 1:17-26) 찬 82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한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부른 활의 노래에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첫째, 그들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두 용사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했습니다. 둘째, 그들의 수고로 이스라엘이 유익 되었음을 인정

했습니다. 사울의 희생이 이스라엘의 안녕을 가져온 것을 기리며 그들의 죽음을 애송했습니다. 셋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존중히 여긴 까닭은 인간의 부패한 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오직 기름부음(성령)을 좇아 이 마음을 계속 지킵시다.

토 다윗의 복판 (삼하 2:1-11) 찬 500장

다윗의 경외신앙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였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는 일이나 헤브론에 머문 일이 기도응답으로 따른 것을 보면 다윗은 단순한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직후 마음대로 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철저히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성령을 좇는 성도는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모든 유혹을 피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다윗이 길

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포장하고 축원한 것은 그 신앙의 진실성을 증거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은혜와 진리에 초점을 둔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기름 부음의 인도를 따른 것으로 반드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요약되며 하나님 성품의 답음을 가리킵니다. 주님 형상을 닮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복을 사모할 뿐 아니라 세상에 증거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69)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오늘날 현존하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음악 장르에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는 돈 모엔 (Donald James Moen, 1950-)입니다. 그는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의 대표로도 활동하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곡은 '나의 가는 길(God will make a way)'입니다. 그가 이 영향력 있는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987년 3월 돈 모엔의 아내인 로라 모엔(Laura Moen)의 여동생 수잔(Susan)의 가정에 닥친 비극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레이그 펠프스(Craig Phelps) 그리고 네 명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오클라호마 집에서 콜로라도의 리조트로 스키 여행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텍사스 팬핸들(Panhandle)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들 가족이 타고 가던 밴이 18톤 대형트럭에 뒷부분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충돌이 얼마나 강하게 펼쳐졌는지 뒷자리에 있던 펠프스의 네 자녀가 모두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좌석에서 나와 밴 뒤쪽에 마련된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중상을 입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만 의지해 엄마와 아빠는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근처 울타리 옆에 누워 있는 9살 아들 제레미(Jeremy)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목이 부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인 크레이그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소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제레미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광야에 45분 동안 앉아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세 아이는 다행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접하며 9살 난 제레미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돈 모엔은 다음 날인 1987년 3월 19일 비행기를 타고 오클라호마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는 이사야서 43장에 그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에 깊은 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과거의 일을 기억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실 큰 축복 즉 광야에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돈 모엔은 바로 그 구절에 운율이 떠올랐고 즉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노래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장례식에서 부르려고 노트에 그 노래를 스케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어서 그 노래를 대신 불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돈 모엔은 수잔과 크레이그를 품에 안은 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한 노래를 주셨다"고 말하며 비행기 안에서 스케치 한 그 노래 "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신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잔이 나중에 부엌 싱크대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그 노래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말과 행동이 사라진 후, 수잔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약 2년이 지난 1989년 돈 모엔이 엘라베마주 도탄의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슬픔에 잠긴 그 가족을 위해 작곡한 그 곡을 예배에서 부를 생각을 전혀 없었지만, 웬지 모르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라"라는 감동을 주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노래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돈 모엔은 인테그리티 뮤직의 주요 직원 경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며 이 곡을 다시 부르며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마치자 사운드 엔지니어 볼드윈(F. G. Baldwin)이 돈 모엔에게 다가와 '그 노래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녹음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몇몇 스태프들과 논의한 끝에 "영원한 신"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에 이 노래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와 오늘날까지 워십찬양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돈 모엔이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이 곡에 대해 소개하는 끝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비록 밴 크여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의사의 리포트에 좋지 못한 기록이 적혀있어도 실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God will make a way to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은 결국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을 갖고 그 곡을 소개하며 그는 종결을 맺었습니다.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축복받은 영혼은 자기 속에 부여지는 빛나는 빛을 점점 더 많이 감내하는 거꾸집이자 영적인 태양이 정오에 내 뿜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몸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루이스는 궁극적으로 축복받은 영혼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돈 모엔을 사용하셔서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며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의 시기, 특히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축복받은 영혼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합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98. 짝꿍 기죽은 남편은 이럴 땐 울고 싶다

아내에게 기를 꺾고 죽이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기가 죽어 할 일도 제대로 못 하게 되어, 결국 가정과 직장 사회 모두가 불행하게 됩니다. (남편 기 꺾고 죽이는 아내의 말 10가지)를 반면교사 삼아, 남편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므로 가정과 직장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듣다 보면 거짓말도 정말처럼 느끼게 된다. 아내는 나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푸념을 한다. "너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신세 망친다."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지만 한창 예민한 아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다.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를 동정하면서 나를 무능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지 않았다면 지금쯤 거리에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친정에 가서 반찬거리를 얻어올 뿐이다. 반찬이 없다고 흠뻑이 된다는 현실은 어디서든 들어본 일이 없다.

5.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아내는 내가 어쩌다 아침 식사라도 똑똑하면 "당신 밥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라며 타박을 한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비참한 심정을 잘 모를 것이다.

6. "어휴, 유유상종이지"

남편이 미우면 그 친구들도 미워하는 아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된다"는, 당신 친구 중에 쓸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

7. 남편에게 너라고 하는 아내

아내는 특하면 나에게 '너'라고

한다. 듣기 거부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 "너한테 너라고 하는데 왜 그래?"

8. "돈 몇 푼 된다고 가계부를 써?"

아내는 돈을 쓰고 나서는 항상 도둑맞은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가계부를 사다 주었다니 제대로 쓰기는 커녕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왜 가계부 안 써?" "당신이 벌어들인 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가계부를 써. 쓸 거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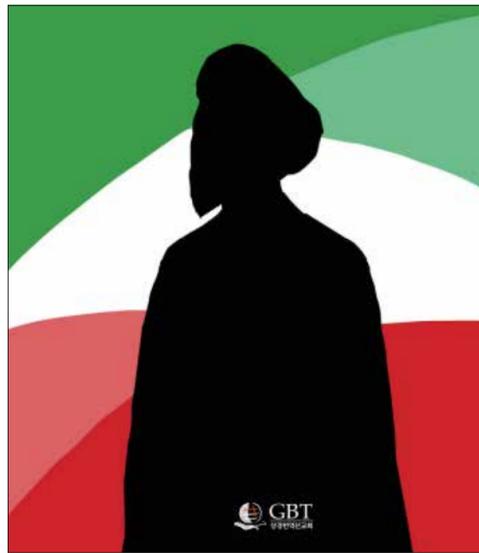
9. "당신 죄를 당신이 몰라?"

아내는 나에게 기분이 상하면 죄 없는 아이를 사정없이 때린다. "왜 죄없는 애를 때려?" "당신 죄를 애가 대신 받고 있는거야." "내 죄가 뭔데?"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10. "누가 더 중요해?"

어느 집이나 고부간에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고부간에 종종 충돌이 생긴다. 이럴 때 아내는 회사 야릇한 키퍼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한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세요." 나 보고 어쩌란 말인가.

세계 고교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이란

▲ 종족명 남부 루리 종족

▲ 인구 약 875,000명

▲ 종교 이슬람교 100%, 복음화율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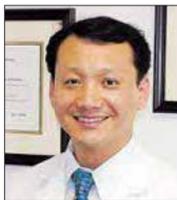
▲ 복음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해 유목을 해 왔다. 이란에 정복되면서 유목이 어려워졌다. 루리 지역에서도 석유가 발견되었지만, 그 수익은 이란의 지배층에게만 주어졌고 고등 교육도 허용되지 않았다.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대부분 루리어를 사용한다. 매년 병 낫기를 위해 이슬람 성인들을 모신 사당을 찾는다.

▲ 기도제목

- 1. 남부 루리어 성경이 속히 번역되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2. 복음이 오디오로 녹음되었는데 방송 등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

매년 4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심한 관절염때문에 기존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관절교체 수술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릎관절인데 무릎관절 내에는 연골이 있고 연골은 관절내에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연골을 오랫동안 쓰다가 보면 마모가 된다.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다가 보면 관절강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관절이 붓게 되는 것이다. 관절염증은 관절내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약물치료나 운동요법을 실시하지만 관절염이 지속되면 결국은 관절교체 수술까지 가게 된다.

첫째, 체중을 조절하라.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의 3-6배 정도의 무게가 무릎으로 전달이 된다. 예를 들면 6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길을 걸으면 각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은 180kg이 된다. 이처럼 과체중과 관절염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그중에도 무릎 관절염은 체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특히 여성에서 과체중은 관절염과 더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과체중인 여성이 체중을 조절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외상을 피하라. 관절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손상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통계에 의하면 무릎 관절내 전방 심자이나 반월상 연골에 손상을 받으면 10-20년내에 퇴행성 관절로 발전될 확률이 50%이상이라고 한다. 특히 30-40대에 운동을 하다가 관절에 손상을 받으면 후에 관절염으로 나타날 수가 많다. 셋째,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피하라. 전문가들은 운동을 할 때 딱딱한 시멘트 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테니스를 하든코트에서 치거나 스키의 모굴과 같이 무릎에 직접적인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은 무릎관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절염의 원인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수십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 미리 대처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 몸의 관절은 흔히 기계의 부품과 흔히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계부품도 평소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몸의 관절도 건강할 때 잘 관리하면 노년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다. 관절관리는 30대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실제로 관절내 미세한 퇴행성 변화는 30대초부터 시작한다는 연구가 있다. 체중조절이나 외상을 피하고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을 피하는 것들이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다.

넷째, 건강한 근육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근육은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적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면 일반적으로 하지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작은 스트레스도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근육을 강화시키려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한다. 수영이나 팔지깁기 등이 하지 근육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육을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에 가해지는 외상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건강식품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판매하는 관절 강화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장기간 복용할 시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흔히 복용하는 글루코사민(glucosamine/ chondroitin sulfate)제제는 관절예방 효과가 연구된 적이 있지만 그 이외의 제품들은 연구된 바가 없다. 관절염 예방은 관절이 건강할 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30-40대 관절증상이 없을 때부터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되면 노후가 되어서도 건강한 관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다.

▲문의:213-383-9388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like New York, New Jersey, and Hawaii.

신앙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유미 집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조라하고 재미없다...’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내 믿음도 기대하던 만큼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거 같아 사는게 시시하게 느껴졌었다. ‘십 년쯤 뒤엔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과도 더 친해지고 싶다.’

십몇 년 전 거리를 걷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 최상훈 목사님의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도가 “다”라고 말씀하신다.

동생의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교통사고에서 피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에서 만난 권총 강도를 뒤로 하고 고장 난 차로 내달리며 가까스로 건짐을 받으면서 그동안 쌓여진 기도와 중보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셨다 한다.

이 책은 씨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 마쳐지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내게 기도의 영적 원리를 되짚게 하고 기도의 방향을 전환 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태위태한 동생의 사업, 조

카들의 구원, 아버지의 치매,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같은 말 반복하기 싫어하는 내게는 똑같은 기도가 쉽지 않은 일이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머리카락도 제시는 하나님께 매일 내 기도 제목을 상기시켜 드려야 하나, 내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야 하는건가, 하나라도 놓치면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될까봐 남편의 오장육보에 전립선까지.

나이 들에 따라 건강을 지켜주셔야 할 내 기도 list도 늘어가고 있었다. 매일 읊조리다 보면 다른 기도들은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남편과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의 들러리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심 분을 넘기기 힘든 내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기에 이르러던 기도 list가 필요하기도 했다.

기도소년 최상훈은 학원비가 없어서 방과 후엔 교회로 향했고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다.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한다. 꼬마 기도소년은 기도를 할수록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기도를 더 오래하며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다는 부분이, 나도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싶다는 굉장한 동기부여를 주었다.

최상훈 목사님에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가 삶의 모토가 된 계기가 있었다.

동생의 군대면회를 다녀오는 길에 ‘그 차를 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족과는 따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같이 돌아왔다면 자신이 타고 있었던 조수석에 서는 살아나올 수 없을 정도의 사고였음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고 하나님께 눈물나게 감사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기본 두 세 시간 기도하던 어릴 적 모습이 환상적으로 보였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 것들을 찾아 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본인도 있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해 온 것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엄격하시고 무서워서 하나님 믿으시라고 말도 못 꺼내본 거 같다. 제사도 열심히 지내시고 자기 신념도 너무 강하신 분이려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 상상이 잘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25년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큰언니

와 형부가 개척교회를 하자, 교인이 너무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드디어 그 교회에 개척교회 1호로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내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어 주셨구나!’ 라는 감격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다.

나에게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체험이 된 우리 집안의 최대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시간과의 싸움같이 느껴지고 기도가 만성화되는 듯한 느낌은, 때로 대답 없는 메아리를 접하는 듯한 좌절감을 갖게도 한다. 우리의 쉽지 않은 기도의 여정에, 최목사님의 오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돌파해야 할 tip을 얻게 된다. 영적 가치를 계속 붙드는 routine을 만들고 ‘체질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는 화양교회의 표어가 나에게 참 도전이 되었고, 나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 1시간 기도하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그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충만의 원리’가, 내가 더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격려의 말씀이 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절대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들 공감하는 ‘고통 총량의 법칙’을 입증하듯 가정마다 감사 안고 있는 나름의 기도 보따리들이 있다.

우리는 곧 머지않아 고비의 시간들이 지나고 감사의 간증이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최 목사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통로를 여신다고 말씀하신다. 최 목사님의 아이가 전신파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였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고백하셨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라 생각된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기에, 최 목

사님은 현장 예배 인원을 늘리기 위해 9번의 예배를 드리신 것에 마음이 울컥했다. 목이 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강단에 오르는 목사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목숨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듯 보였다.

모니터 화면 앞에 모여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캄보디아 아이들이 단기선교를 위해 몇 달전부터 기도하고 zoom예배를 위해 선교 물품, 대형 tv며 인터넷설치까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한번 뭉클했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온라인 단기선교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본질인 예배로 말려진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되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다 올릴 수 있지만, 기도가 우리의 목적만을 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 필요의 가장 정답도 아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만 하고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어진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석함에 다 쌓이겠지만, 기도를 잘 못 해도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는다.

기도 생활을 체질화, 생활화하면 감사를 미리 할 수 있는 믿음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리라 본다.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Young man and Bosman”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지난 화요일(2025년 1월 21일) 거의 1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Nexus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예약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좀 일찍 출발했기에 서두르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 도착해서 별로 기다리지 않고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에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인터뷰창구로 다가가자 인터뷰하는 사람이 저를 향해 손짓을 하며 저의

이름을 대신해서 저를 "Hi young man" 하며 불렀습니다. 순간 저의 마음은 무장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80을 바라보는 곧 쇠에 울릴 누에처럼 하얗게 변해가고 있는 저를 "젊은이"라고 불러주시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장해제가 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사람의 가슴에 차고 있는 "Bosman"이라고 새겨진 그 사람의 이름표였습니다. 순간, "Boss"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 지으며, "Thank you, Bosman. You are My Boss" 하고 응답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도 또한 크게 웃으며 저의 서류를 요청해 받아서 아주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 웃으며 제 아내에게 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Young lady, Why don't you apply position for here?"

물론 우스갯소리였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 그래서 제 아내가 "Can I?"라고

응답하고 웃음을 나누며 자리를 물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느라고 마음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상대방을 웃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일처리를 해주는 그 여유로움이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각에 오늘 하루가 참 즐거

웠다는 생각과 함께 그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 생활에 특별한 한 사람, Bosman이 있었다는 생각에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미소 짓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